이대호 마이너 계약…돈보다 꿈 향한 도전

스프링캠프 초청선수로 25인 로스터 경쟁
메이저리그 올라가야 1년 총액 400만달러
소프트뱅크 보장액보다 '빅리거 기회' 선택

알려진 것과 달리 40인 로스터도 보장된 계약이 아니었다. 일본에 남았으면 3년 총액 18억엔(약 183억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악의 조건을 감수하고 메이저리그 도전이라는 꿈을 택했다.

3일 오후 알려진 이대호(34)와 시애틀의 계약이 4일 국내 소속사인 몬티스 스포츠를 통해 공식 발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몬티스 스포츠 박재한 팀장은 "계약상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MLB닷컴 그렉 존스 기자는 "시애틀과 이대호가 마이너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제리 디포토 시애틀 단장의 "이대호는 한국과 일본에서 매우 높은 생산성을 보여줬다. 1루수에서 경쟁할 또 한명의 잠재력 있는 우타자다"라는 소개말을 전했다.

일부에서 이대호가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포함되는 계약을 했다고 알렸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시애틀은 4일 이대호의 이름을 40인 로스터가 아니라 스프링캠프에 초청되는 총 7명의 명단에 올렸다. 시애틀 구단과 소속사는 계약 금액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MLB닷컴은 "아직 연봉과 관련해서 공식 발표는 없다. 한국야구 칼럼에 400만달러(약 48억원)라고 보도됐지만, 이는 스프링캠프 경쟁에서 살아남아 메이저리그 클럽하우스에 진입했을 때 가능한 액수다"고 설명했다.

이대호는 KBO리그에서 11년 동안 타율 0.309에 225홈런, 일본무대에서 4년 동안 타율 0.293에 98홈런을 기록했다. 일본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하는 등 정상급 외국인선수로 대접 받았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꿈이 아닌 현실을 택했다면 소프트뱅크로 복귀해 계약서상에 보장된 5억엔(약 51억원)을 받고 '1+1년' 연장계약까지 했다면 3년간 18억엔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그의 최종 결정은 '아름다운 도전'이었다.

이대호는 그동안 가족과 주위사람들에게 "메이저리그에 꼭 가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소프트뱅크의 연장계약 제안에도 "일본으로 돌아갈 확률은 10%도 안 된다"며 꿈을 향한 의지를 더 다졌다. 시애틀과의 계약 발표 직후에도 "스프링캠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주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충분히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에는 아메리칸리그 지명타자 랭킹 1위로 꼽히는 넬슨 크루스(36)가 있다. 지난해 타율 0.302에 44홈런, OPS(출루율+장타율) 0.936을 기록했다. 1루수인 좌타자 애덤 린드(33)도 지난해 타율 0.277, 20홈런, OPS 0.820을 기록했다. 그렇기에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 있다. 주어진 시간은 스프링캠프가 전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대호처럼 초청선수 자격으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메이저리그 25인 로스터, 나아가 주전선수로 발돋움한 사례도 그동안 종종 있었다. 이대호는 올 겨울 소속팀은 없었지만 체중을 11kg이나 줄이는 등 메이저리그 도전을 목표로 착실히 훈련해왔다. 특히 시애틀의 스프링캠프지인 피오리아에서 롯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현지 분위기도 미리 익혔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시애틀 매리너스는 4일(한국시간) 이대호와 40인 로스터 보장이 아닌 스프링캠프 초청권이 포함된 마이너리그 계약을 발표했다. 이대호는 일본에서 보장된 3년 총액 183억원을 포기하고 꿈과 도전을 택했다. 스포츠동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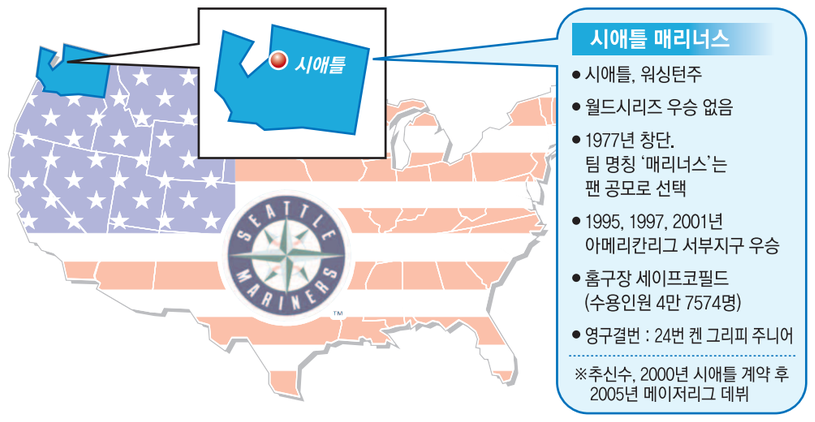
'이치로 신드롬' 2001시즌 AL서부지구 우승

■ 시애틀은 어떤 팀?

시애틀 매리너스는 아메리칸리그(AL) 서부지구에 속한 팀이다. 홈구장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세이프코필드인데,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다. 항구도시여서 '매리너스(선원)'라는 팀명이 유래됐다. AL에서 유일하게 월드시리즈 진출조차 이루지 못한 팀이다.

시애틀에는 1969년 파일러츠라는 팀이 창단됐는데 적자에 허덕이다 1년 만에 밀워키로 떠났다. 이에 시애틀 주민들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고소했고, 재판이 수년째 이어지다 1977년 시애틀 매리너스를 창단하는 것으로 중재됐다. 창단 이후 1990년까지 14시즌 연속 승률 5할을 밑도는 약체였다. 그러나 랜디 존슨, 켄 그리피 주니어, 에드가 마르티네스(이상 은퇴), 알렉스 로드리게스(뉴욕 양키스) 등이 가세하면서 1995년과 1997년 2차례 지구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스즈키 이치로(마이애미) 신드롬'이 일었던 2001시즌 마지막 지구 1위를 경험했는데, 이때 무려 116승을 거뒀다.

그러나 전성기를 이끌었던 루 피넬라 감독(1993~2002년)이 떠난 뒤 다시 침체기를 겪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번도 포스트시즌에 나가지 못했다. 일본 게임회사인 닌텐도가 구단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딕 윌리엄스 감독을 비롯해 게일로드 페리, 구스 고시지, 리키 헨더슨, 랜디 존슨, 켄 그리피 주니어 등이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이 가운데 메이저리그 전체 영구결번인 재키 로빈슨(42번)을 제외하면 켄 그리피 주니어(24번)만 시애틀의 유일한 영구결번 선수다.



시애틀 매리너스
- 시애틀, 워싱턴주
- 월드시리즈 우승 없음
- 1977년 창단. 팀 명칭 '매리너스'는 팬 공모로 선택
- 1995, 1997, 2001년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
- 홈구장 세이프코필드 (수용인원 4만 7574명)
- 영구결번 : 24번 켄 그리피 주니어

※추신수, 2000년 시애틀 계약 후 2005년 메이저리그 데뷔

전성기였던 2000~2003년 300만명을 돌파한 홈 관중은 성적 부진이 장기화된 탓에 2015년 219만명대로 감소한 상태다. 2010년 사이영상 수상자인 '킹'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간판스타다. 투수 이와쿠마 히사시, 외야수 아오키 노리치카 등 일본선수도 2명 있다. 추신수(텍사스)가 2005년 메이저리그 데뷔를 이룬 팀이기도 하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 시애틀을 관점에서 본 이대호는

이대호는 라인드라이브 히터 구장 특성상 홈런보다 장타력

한국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2015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선수들의 '쇼케이스'였다. 당시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조별예선이 열린 대만에서 일본의 마에다 겐타(LA 다저스)를 비롯해 한국의 박병호(미네소타), 김현수(볼티모어) 등을 관찰했다. 이중에는 스카우팅 파트의 책임자급을 파견한 구단도 있었다. 물론 수뇌부의 시선은 마에다가 등판하는 경기에 집중됐다. 반면 극동지역을 담당하는 현지 스카우트들은 한국을 비롯해 마이너리거들이 나선 미국이나 중남미 국가의 경기를 꾸준히 지켜봤다. 시애틀의 대만·중국 담당 스카우트인 샘 카오 역시 한국 경기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영상을 찍고 리포트를 작성했다.

당시 해당 스카우트는 특정선수를 관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도 방문해 이대호(34)에 대해 잘 안다며 "좋은 선수다. 박병호와는 다른 스타일의 파워히터다. 콘택트 능력이 좋고 효율적인 야구를 한다. 홈런 외에도 2루타 이상의 장타를 날릴 수 있는 라인드라이브 히터다"고 평가했다.

그의 평가에서 시애틀의 관점을 유추할 수 있다. 시애틀은 이대호와 스프링캠프 초청 자격이 포함된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다. 이미 넬슨 크루스(36)라는 최고의 지명타자가 있고, 비시즌에 좌타자 애덤 린드(33)를 데려와 1루수 자리도 채웠다. 린드와 함께 플래툰으로 나설 우타자 헤수스 몬테로(27)도 있다. 굳이 이대호에 목맬 필요성이 없는 구단이다. '보험용' 성격이 짙은 영입이다.

그러나 시애틀은 이대호의 남다른 타격 스타일에 주목했다. 그는 전형적인 파워히터와 달리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콘택트 능력과 부드러운 스윙을 바탕으로 장타를 생산하는 스타일이다. 베이브 루스 같은 거포가 등장하기 전 메이저리그 초창기 홈런 생산이 많았던 '라인드라이브 히터'들과 흡사하다.

시애틀의 홈구장 세이프코필드는 대표적인 투수친화적구장이다. 좌측 담장까지 101m, 가운데 담장까지 122m, 우측 담장까지 99m로 잠실구장(좌·우 100m, 가운데 125m)과 크기가 비슷하다. 여기에 홈플레이트에서 가장 깊숙한 외야 펜스까지 거리는 123m이고, 좌중간 115m, 우중간 116m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또 비 오는 날에만 지붕을 닫는 개폐식 돔으로 지붕이 열렸을 때는 바닷바람의 습기로 타구가 멀리 뻗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난해 44홈런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2위에 오른 크루스도 홈(17개)보다 원정(27개)에서 많은 홈런을 생산했다. 팀 입장에선 홈런에서 손해를 보는 전형적인 파워히터보다는 정확성을 앞세워 2루타 이상의 장타를 날릴 수 있는 라인드라이브 히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이대호의 느린 발은 약점이 될 수 있다. 스프링캠프를 통해 라인드라이브 히터의 장점을 확실하게 어필하는 것이 빅리거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 맨'!!

NAVER 에서 뉴맨 을 검색



안녕하세요, 탤런트 김 형일 입니다.
저도 세월이 흐르니까 밤이 무서울 때가 있더군요, 하하,
그런데 '뉴맨'을 만나고부터 밤이 기다려 집니다,
밤을 기다리게 하는 '뉴맨'! 남자에게 최곱니다!

동.서.고.금. 남자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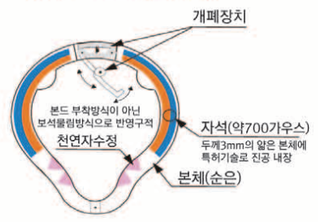
수세기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남성들은 약해져 가는 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옥이나 실리콘 등으로 만든 링을 사용해 왔습니다.

'뉴맨'은 이러한 기존 링을 모토로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효능과 안전성은 극대화시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명칭의 발명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강직도도 약해지고 중간에 시드는 현상으로 고민인 남성들에게 사용즉시 더 크고 강하며 중간에 시들지 않고 보다 오래 사랑을 나누도록 확실한 효과를 드립니다.

2005년 첫 출시 후 현재까지 11년 지속 성장, 일본과 중국에 지사 설립, 전 세계 20여개국 수출, 누적고객 120만이라는 기적같은 성공을 이룬 '뉴맨' 은 힘에 있어서는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사이즈를 약 5~7mm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중설계 되었음.



※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특 허 제 10-0756243 호
(PATENT NUMBER)
발명의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성기능 강화용 링
특 허 청

*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평상시 사이즈	뉴맨 호수
6.5이하	주문제작
6.5cm	1호
6.8cm	2호
7.1cm	3호
7.4cm	4호
7.7cm	5호
8cm	6호
8.3cm	7호
8.6cm	8호
8.9cm	9호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6cm	18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이상	주문제작

누적고객 120만! 20여개국 수출!
15일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 반품 · 환불!
11년간 지속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 · 중국지사 T. 0433-286-5031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사용후기가 있습니다. T.1588-3346, 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9길 20 (우면동) (주)케이앤제이뉴맨
통신판매 허가 제2015-서울서초-1790호